

노대통령 고향 방문 중 말씀

기쁜 마음으로 새 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

새해에는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.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와서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당선되고 부모님 산소에 성묘하고 난 후 설길 추석 때 못 왔는데, 오늘 설을 맞아 인사차 왔습니다. 옛날에는 대통령이 나오면 온 군(郡)이 통째로 달라지는 기대를 했습니다. 그런데 김해군은 많이 안 달라졌습니다. 고향서 대통령이 나와서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. 그렇지만 대통령이 잘못 하고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으면 공연히 편들고 얼굴 붉히고 싸움하고 그러지요. 그게 다 고향사람 마음입니다. 언제와도 오고 싶은 곳이 고향입니다.

내가 할일은 대통령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난 1년간 느끼기에 시끄럽고 불안한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불안한 것도 없고 혼란도 없었습니다. 살다보면 그런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. 많이 시끄러우면 뭔가 좋은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. 시끄럽고 어렵지만 조금 지나면 좋아지는 게 한국의 역사입니다.

앞으로 하늘이 한국을 돌봐줄 것 같습니다. 국민들이 어려운 일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만 잘 하면 됩니다. 지난해 따져보니 잘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당장 피부에 느낄 수 없더라도 올 한해 지나보면 알 것입니다. 기쁜 마음으로 새 시대를 맞을 것입니다. 2만 달러 시대 약속했습니다. 내 임기 중에는 안 되더라도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. 동북아 으

뜸 국가의 토대를 놓겠습니다.

지방도 잘사는 시대는 잘 될 것 같습니다. 어려운 일이라 의심도 했지만 1년 지나 보니 그 전보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. 농민들이 어렵습니다. 모든 농업이 다 잘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. 잘되는 것은 키우고 안 되는 것은 덮어야 합니다. 농촌에 새로운 복지를 끌고 와서 농사를 덮어야 할 사람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박또박 챙기겠습니다. 농민대표들과 만났습니다. 지난해 요구사항 중 안한 것 있느냐고 물었더니 웃기만 합니다. 농민들 요구는 다 들어줬습니다. 좀 더 떠들어야 챙겨준다며 데모 계속합니다. 신경 쓰고 있습니다.

제 고향이 여기고 저도 형님 농사짓는 것을 도왔습니다. 걱정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. 똑똑한 사람도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잘못한다고 지적하는데 잘 할 수 있습니다. 공부 하는 것, 내가 하고 싶은 것, 못한 것이 없습니다. 대통령도 잘 하겠습니다.